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팬데믹 현상(대유행)이라는 용어를 전 인류에 각인시켰던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벌써부터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전 같으면 이때엔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들이 개막되고 경기장은 합성이 요란하고, 자연에서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로 어수선했던 텐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기 스포츠 리그가 조기 폐막되거나 시즌이 연기되어 개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이다. 미국을

AC COVID 19, 스포츠는 어떻게 변화될까? I

비슷한 전 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중단된 채 조바심을 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여겨져 프로 야구는 언택트(비대면)형태로 시즌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의료진들의 수고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인해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안정돼 K-컬처에 이어 K-방역, K-복지로 또 하나의 선진국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 시켰으나,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감염자들이 발생되며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 국가들마다 안타까움이 크지만 올림픽 경기 개최국인 일본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면 전 세계 모든 이목이 도쿄 올림픽에 집중되고 있을 텐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 경기가 1년 뒤로 연기돼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여건이 해소되지 않고는 1년 뒤에도 개최가 불투명하기에 불안감은 지속될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은 국가 발전 전략 스텝이 완전 포인팅국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 팬데믹 선언 직전까지도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며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다가 대처 기회를 놓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올림픽 경기 개최를 통하여 잔존 침체된 자국경제를 되살리고 위축된 청년세대에 기를 불어넣어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아시아 최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시도했다. 개최가 연기되며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패전 후 최고로 어수선했고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일본은 개최 연기로 인해 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과 급격한 대외 신용도 저하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연간 약 1500조원

규모의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프로 스포츠 산업은 다른 사이징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람 중심 스포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생활 스포츠 분야는 소그름 또는 개별 스포츠 중심으로 야외 활동 선호 경향으로 변화될 듯하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올림픽 경기와 같은 메가스포츠 대회 유치는 국가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기대 할 수도 있으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이반과 같은 변수가 발생된다면 큰 손실이 따를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 부양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잔존 위축된 제주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스포츠 이용은 효과적인 수 있다. COVID19 이후 뉴딜(New Deal)정책이 하나로 스포츠 산업을 주시해 볼 때인 듯하다.

열린마당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현 소 라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매일 아침 사과 한 조각을 먹으며 시작했던 때와 달리 근 두 달을 휴대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검색하며 하루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 일상의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마스크 기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 합동 방역 지원, 의료지원, 기부행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두 팔 걷어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변화와 맞물려 제주도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긴

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5부제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JDC, 도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도의회, 임시회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소통 부족을 도마에 올리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 지난 15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JDC 관계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이에 의원들은 “도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제도개선)결정 후 소통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이 볼때 오만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지적, 오온지기자 “갈등·분열 치유해 국민통합” ○…원희룡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7일 기념 메시지를 통해 “광주민중화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발전의 힘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자유의 확대, 절차적 민주

주의 바탕 위에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 원 지사는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증오와 배제의 미숙한 정치도 국민통합의 성숙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첨언. 백광탁기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제주시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49곳에 대해 7월 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실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소방안전관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대비한 관리대책 등 예방적 복지행정을 위한 것. 시 관계자는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사설

‘천길 낭떠러지’ 지역경제에 소극적 도정

제주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천길 낭떠러지’에 섰습니다. 상당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자제 분위기로 제주경제가 관광업에 이어 음식점, 도·소매업 등으로 확대되는 위기상황을 맞은 지 오래입니다. 도내 관광업계는 이달 초 황금연휴기간 반짝 특수에 잠깐 회복세를 보였지만 제주 14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종전 상황으로 되돌아갔고, 7월쯤 단체 관광객 활성화 기대도 접어야 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올 1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은 제주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해 전국 최저수준이었고, 소매판매도 전년보다 14.8%나 줄어 16개 시·도중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줄폐업’사태는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올들어 4월까지 제주시 일반음식점 폐업건수는 271곳

에 달해 전년 동기 159곳에 비해 무려 70% 증가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연간 폐업건수를 보더라도 2017년 368곳, 2018년 437곳, 2019년 529곳으로 계속 증가해 경기침체 여파를 짐작케 합니다. 제주도정이 이같은 지역경제 위기 대처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태석 도의회의장은 지난 14일 이른바 ‘코로나19 추경’을 다룬 임시회에서 “제주 지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줄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토론회, 축제 등의 개최경비와 불용된 공공근로인건비, 사업규모 축소 불용예산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관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도정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만이 아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례없는 대책 마련에 나설 시기를 놓쳐선 안됩니다.

시멘트 공급 중단, 조속히 타협점 찾아야

요즘 제주지역 건설현장이 거의 멈춰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시멘트 원료 운송이 아예 끊기면서 레미콘 생산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멘트 공급까지 장기간 중단돼 말이 아닙니다. 제주지역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BCT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위험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BCT 화물노동자들은 단거리 운송 중심의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적자 운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이 때문에 시멘트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시멘트업체와 운송사업자 등에 교섭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제주도가 국토부와 시멘트업체를 방면하는 등 중재 노력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도내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중단됐습니다. 학교공사 등 급급공사는 물론이고 숙박시설 공사 등 민간공사까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원도급 업체 피해가 하도급·펌프카업자에 이어 전기·소방업체로 그 불뚱이 튀고 있어 큰 일입니다. 가뜰이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건설업마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시멘트 공급 중단사태가 더 이상 끌려선 안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 고

김상혁(前 초등교장) 아버지 **경주 김공 대일(향년 90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7일 04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5월 18일(월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5월 19일(화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 장 지: 소길리(노교메) 선영

아 들 **김상혁** 며느리 **부수영**
두혁 **김애란**
상진 **공정임**
상호 **고정심**
딸 **김선희**
영희 사 위 **양정식**

※연락처 : 김상혁 010-7933-5764
김두혁 010-8231-1166
김상호 010-4805-6389

부 고

양문석(서울지방경찰청) 아버지 **제주양공 한진(신임중학교 교장·향년 63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7일 13시 3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5월 18일(월요일)
- ▶ 발 인: 2020년 5월 19일(화요일)
-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로동 소재) 장례식장 제2분향실
- ▶ 장 지: 양지공원 → 해안동 선영

부 인 **김순종**

아 들 **양문석** 며느리 **정영희**
딸 **양연재** 사 위 **이범희**

양희재

※연락처 : 양문석 010-4549-6567
김순종 010-8625-626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래정씨 영훈(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18일

아 들 **오원일** 며느리 **강맹숙**
원 종 **다비**
딸 **오복실** 사 위 **김문태**
오광철
선병호
강성근
현인호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05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피 고 인 임 예 중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고영명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15.

판사 **박 준 석**

금 매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 락 처
010-4855-601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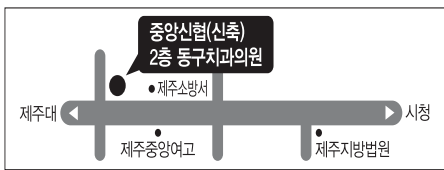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